

광주·전남, 국가 예산 '가중치 적용' 수혜지역 되나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새 정부 핵심과제 균형발전 강조
지방교부세·SOC 배정 곱하기 적용
"지방 배려 수준 넘어 '지역 우선'
'5극3특' 체제 위해 정책·재정 집중

수도권 중심 구조를 깨고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 정책과 예산을 두텁게 배분하는 '가중치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라고 국무회의에 지시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 거리, 또는 여러 지수들을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의 거리, 인구소멸 정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지역 가중치' 도입이 예고되면서, 광주·전남을 포함한 호남권이 수혜지역이 될 것이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 발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 정책 결정 및 예산 배정 시 지역별 가중치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군 단위, 인구 소멸 정도에 가중치를 조금씩 켜서 표를 만든 다음에 예산 배정 시 가중치에 곱하기하는 방식"이라고 "농촌 기본소득이 효율성이 높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으로 부터 멀수록, 인구 소멸 정도가 가파를수록 정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인구소멸 지역에는 민생 소비지원쿠폰을 더 지급했다면서 앞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할 때 곱하기 해서 자동케이스로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 의무화와 가중치를 주는 등의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전면적인 대전환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정책이나 예산 배분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극3특'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

도 육성) 체제 구상에 대해선,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충청권 메가 시티와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동남권), 광주·전남(호남권)에 앞으로 정책 이든, 재정이든 (모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극3특'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을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강원·전북·제주를 각각 특화된 특별지방정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그중에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면서,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정책이다).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설치),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 대위원회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단계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5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광주·전남 장마 끝
폭염·열대야 지속
역대 두번째 장마 빨리 끝나
"온열질환 철저히 대비해야"

올해 광주·전남 지역 장마가 역대급으로 빨리 지나갔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실상 장마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마 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해 2주 만에 끝났다. 광주·전남에서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이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정체전선도 밀려 함께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의 장마가 평년보다 빨리 끝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는 데 더해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유입하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특보권에 들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같은 지역별로는 폭염이라 하더라도 특성이 달라 일찍 북태평양 고기압이든 내륙(남쪽지방)은 강한 일사와 남서풍 등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체감온도보다 더 높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관리 등에 유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
이정준 기자 jeongjune.lee@jilbo.com

OK! Now Jeonnam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수당 10만 원 시군수당 10만 원

전라남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